

1920~1950년대의 아동복식에 관한 연구

김 정 아*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석사)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본 연구는 사진·문헌자료·유물자료 및 서울·경기, 충청, 강원 세 지역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1920~1950년대 일반 서민층의 아동복식을 살펴본 것이다. 이 시기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조선 후기와 유사한 전통적 복식의 형태가 남아있으면서 개항과 더불어 유입된 서양복식이 자리잡아 가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조사내용은 출생 이후 아동기 전반에 걸친 복식이며, 조사대상을 일부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서민층의 아동복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관례를 치르던 연령이며, 현대의 아동학에서 아동기를 구분하는 연령인 1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아동기로 보았다.

1920~1950년대 일반적인 아동복의 형태는 남아는 저고리와 바지, 여아는 저고리와 치마였다. 출생의례 복식인 배냇저고리는 부드러운 흰색 면직물을 사용해서 만들었으며, 아기가 성장한 후에 시험이나 큰일이 있을 때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풍습이 있었다. 두렁치마와 풍차바지는 남아와 여아의 구별 없이 입히며 대체적으로 출생 후부터 배변훈련이 끝나는 시기인 4~5세 정도까지 입히고 5세 이후에는 여아는 치마, 남아는 바지를 입혔다.

아기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로는 백일과 돌이 있는데, 일반 서민층에서는 백일은 대개 간소하게 치르지만 돌에는 아기에게 새옷을 지어 입히며 돌잡이 등의 행사로 아기의 무병장수와 복록을 점치고 기원하였다. 돌 이전에는 흰색의 옷을 많이 입히고 돌 이후부터 색깔이 있는 옷을 입히기 시작하였다.

여아가 일상복으로 입은 저고리와 치마는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다르게 하였다. 특히 겨울에는 솜저고리와 세탁에 편리한 누비저고리를 많이 입었다. 여아 치마는 성인치마에서 영향을 받은 조끼허리가 달린, 종아리 정도에 이르는 길이의 통치마 형태였다.

방한 및 예장을 목적으로 입은 외의(外衣)인 두루마기는 일부계층에서만 입었으며, 서민층 아동은 대부분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 방한용으로 솜저고리를 입어 두루마기를 대신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발은 일반적으로 검정고무신을 많이 착용하였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부계층의 아동이 구두와 운동화를 착용하였으나 일반 서민층에서는 여전히 짚신과 미투리 등을 신었다.

이 시기는 개항 이후 유입된 서양복식이 서민층에까지 전이되기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학교교육을 받게 된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양복을 입기 시작했다. 1930년대 이전에 아동이 주로 착용한 속옷은 속바지(고쟁이)와 속적삼의 전통적 형태였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무명으로 만든 짧은 팬티 형식의 '사루마다'가 많이 등장하였다.

면접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 시기의 아동복식은 세 지역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지역이 우리 나라의 중부에 위치하여 서로 인접해 있으므로 복식의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신문화를 빨리 접했던 계층의 아동과 비교해서 일반 서민층 아동이 전통적인 형태의 복식을 더 많이 입었다. 이것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는 서민층에서는 서양복의 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후속연구로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의 문헌 및 유물조사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아동복식의 지역적 특성과 전국적인 공통성을 파악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